

특별취재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군산보건소 건강관리 주의 당부

군산시보건소가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건강관리에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은 2010년 이후 가장 빠르며, 현재 분리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A(H3N2)형으로 유전자 분석결과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다.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일 반적인 감기와는 다르며,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후통,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되면 고 위험군 환자(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회,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군산=문정근기자

원광대학교 LED대학원과정  
전문가 초청 특강·취업지도

전북도 지원 취업연계 원광대학교 LED 대학원과정(담당교수 박대희)은 산업체 전문가 초청 LED 실험실습 특강 및 취업 지도를 실시했다.

최근 진행된 특강과 취업지도는 산업체 전문가로 원광대 가족회사인 LED라디오 링크 이태훈 대표와 LS이전 연구소장을 지낸 이종호 박사가 각각 담당했다.

실험실습 특강을 담당한 이태훈 대표는 LED 광원의 회로설계 전문가로서 학생들에게 광범한 기술자 보다는 독자적인 전문 기술자로서 준비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LED 광원의 구동회로 설계 제작 실험을 통해 현장 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실사된 특강 및 취업지도는 대학원에서 체계적인 교과목 이수와 함께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동계방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대야남초 등 4개교  
내년 친환경 명상숲 조성

대야남초등학교와 자양·중앙중, 전북외고에 명상숲이 조성된다.

명상숲 조성은 군산시 민생기 핵심 공약사업인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소장을 지낸 이종호 박사가 각각 담당했다.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사업 공모 학교 중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 대야남초, 자양·중앙중, 전북외고 등 4개교이다.

시는 선정된 4개 학교의 내대지 공간을 자연화습원, 습터, 미래숲 등으로 조성해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자연체험 학습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근기자

전북서부보훈청, 김장 담그기 행사

전북서부보훈청장은 최근 군산보훈회관에서 기쁨 들끓!! 행복 나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요양원이 희나리가족봉사단 등 40여명이 참여해 동절기에 김장준비가 어려운 보호가족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으며, 정성스럽게 담가진 김장김치는 생활이 어려운 보호가족 40가구에 전달됐다.

행사에 참여한 김보훈은 "행사를 통해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슴 속 깊이 새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우실 지청장은 "어려운 보호가족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나눔 보훈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봉사단체 및 기업체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행복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국토교통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기간 연장

군산지역 어민들 반발

골재채취 인해 바다어장 황폐화 피해보상 뒷전

국토교통부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 군산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어민들은 10년 가까이 골재채취로 인해 바다어장이 황폐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어민들을 위한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자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90km 내 8개 광구에서 골재용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사업기간을 기존 2008년 1월~2016년 12월에서 2008년 1월~2021년 12월로 5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골재채취 계획량도 기존 6220만㎡에서 9149만 3000㎡로 292.4만 3000㎡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해EEZ골재채취 피해

대책위는 2차례에 걸친 채취 기간 연장으로 막대한 양의 모래가 사라져 어류산란지 등 바다환경이 파괴돼 어족자원 고갈이 심각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부안 모항 해나루에서 열린 서해EEZ골재채취 어업 피해 용역 설명회는 일부 어민들이 용역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를 벌이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고 군산대가 시행한 이번 용역은 총 17억원의 비용을 들여 서해EEZ골재채취 기간 연장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어업 피해가 경미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어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어민들은 용역 발주처가 한국수자원공사라는 사실만으로 선포용역에 불과하며, 용역 결과 또한 어민 피해는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

다는 입장이다.

김종주 대책위 위원장은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이 용역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종 용역 보고서에 어민들의 피해 여부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황폐화된 바다어장을 회복하기 위해선 경남 통영과 같은 대규모 바다목장 사업 내지는 수산양류사업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김종회 국회의원(김제)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속히 시행돼 현재 50대 50%인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수입을 80 대 20%로 조정에 80%를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군산수협에서 진행된 서해EEZ골재채취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산대 용역팀 등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기로 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AI 심각단계 준하는 방역조치 추진

정헌을 익산시장 거점통제초소 2개소 방문 긴급 점검  
민간인으로 운영되던 초소 공무원 전격 투입 결정

그동안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던 고병원성 AI가 최근 전라북도 정읍, 고창, 부안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AI 발생하고, 상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익산시는 AI 유입 방지를 위해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을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헌을 익산시장은 12월 12일 그동안 운영되던 AI 거점통제초소 2개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언제 있을지 모를 강추위에 대비하여 소독약이나 소독기 등이 열지 않고 24시간 상시방역 할 수 있도록 준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접 시·군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민간인으로만 운영되던 초소운영을 12월 12일부터 공무원을 전격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그동안 노조와 협의를 통하여 유사시 긴급 투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부터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았으나, 연말 불철주야 업무 마무리도 불구하고 선뜻 자원봉사에 신청한 공무원은 47명밖에 달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로 최근 AI 발생빈도가 높은 신안군(4개소), 오리(5개소) 농가와 방역중점관리지역(8개소) 농가에 대해 입식, 폐사축, 출하 등을 집중 관

리해 이상축을 조기에 색출하고 점검 및 홍보를 통해 철저한 차단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전담공무원을 활용해 긴급 농가에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할 예정이며, 철새도래지 등 방역취약지역은 축산과와 축원 공동방제단이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정헌을 시장은 "아직도 고병원성 AI가 잦아들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 인접 시·군인 정읍, 부안, 고창에서도 AI가 발생하고 있어 아주 심각한 상태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방역일선에 투입하여 철쭉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행정에 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역에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내년도 예술·체육 장학생 선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2017 예술·체육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선발은 예체능 분야에서 끼와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해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및 역량 개발·육성을 위해 추진된다.

선발 기준은 2016년에 개최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등에서 상위 3위 이내 성적으로 입상한 군산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과 군산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도내 6개 예술체육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홈페이지(www.edugunsa.org) 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학교장 추천서, 입상 증명서류 등과 함께 군산시 인재인성과에 제출하면 된다.

장학금 지급기준은 예술분야와 체육



분야 모두 6등급으로 참여인원 및 대회규모를 고려해 개인 최대 40만원부터 단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초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2008

년부터 예술체육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장학생 724명을 선발해 7억4,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군산지역 학생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2016군산새만금아카데미  
12월 초청강연  
이요셉 소장의  
얼굴이 썩어야 인생이 핀다.  
무료강연

•일시: 12.14.(수) 오후2시  
•장소: 군산시청 대강당(2층) •대상: 군산시민 누구나  
주최: 군산시 주관: 한국수협연합회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이요셉 소장의  
'얼굴이 썩어야 인생이 핀다'

내일 군산시청 대강당

2016년 군산새만금아카데미 마지막 강좌와 함께 수료식이 내일 오후 2시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강연은 스트레스 관리 전문가이자 웃음전도사로 불리는 한국웃음연구소 이요셉 소장의 '얼굴이 썩어야 인생이 핀다'라는 주제로 웃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웃음치료 전문가로 알려진 이요셉 소장은 풀링, 버스 커뮤니티칼리지 웃음스쿨 수료 후 9년간 입원자 1만여 명에게 웃음치료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한국웃음치료전문가협회 고문이자 박달대소 웃음스쿨 교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국내 1호 웃음치료사인 이요셉 소장은 웃음치료가 생소하던 시기에 최초로 웃음치료를 시행해 수많은 암 환자와 불면증 환자, 우울증 환자에게 건강과 삶의 기쁨을 전파했다.

주요저서로는 '인생을 바꾸는 웃음전략', '성공하려면 많이 웃어라', '착한웃음' 등이 있으며, KBS, SBS, YTN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웃음의 중요성과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실행하고 있다.

강연과 더불어 2016년을 결산하는 수료식도 개최해 그간 70% 이상 수강한 수강생 19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전 강좌를 수강한 78명에게는 개근상, 80% 이상 수강한 71명에게는 정근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기자



ECO융합섬유연구원  
개발 상품 사업성과 발표·수혜기업 간담회

ECO융합섬유연구원(KICTEX)에서는 최근 본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의류생활용 섬유기획 및 개발·양산·유통사업'에 참여한 (주)실심섬유 등 4개 기업이 올 한 해 동안 개발한 상품에 대한 사업성과 발표 및 수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의류생활용 섬유기획 및 개발·양산·유통사업'은 융합실심(주)이 사업비 3억 1,500만원을 들여 지난 1년 동안 진행해 온 사업으로, 우수한 소재개발력을 갖춘 국내 천연유복합소재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천연유복합소재 생산 및 패션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도록 맞춤형 정보제공, 시제품 제작지원, 맞춤형 인증 및 프로모션을 지원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주)실심섬유는 한지사와 기능성 ATB100원사를 활용하여 원색의선발출, 한균성, 소취성 등 다양한 기능성을 지닌 원단을 개발하여 남녀 노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이

전제품보다 뛰어난 고부가가치 기능성 스포츠웨어 원단을 개발하였다.

(유)오가니코디는 천연유복합 소재인 에코셀 면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과 농도의 멜란지제품을 개발하여 친환경 웰빙 트렌드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다.

(주)원텍스는 Washable Wool 및 재생단백질을 이용하여 물세탁이 가능하고 우수한 흡수속도 등의 특성을 가진 울 니트 섬유제품을 만들어 차별성을 부각시켜 유아용, 스포츠 등산레저용 헬스 용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시장 매출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비전인터내셔널(주)는 기존에 면, 면 혼방사가 가지는 부드러운 감성을 극대화하고 기본 물성을 개선 차별화된 의관과 터치 기능성 원사의 복합 사가공을 통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감성의 친환경 고부가가치 니트원단을 개발하였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보건복지위 주요사업장 방문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는 제190회 임시회가 개최중인 12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용준)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동연)가 주요사업장 방문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시니어 예비창업자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창업교육과 창업 준비공간,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를 시작으로, 합라면에 위치한 합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장과

망성면에 위치한 내비위성당 종합복지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석담보수정비사업중인 미륵사지까지 둘러보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익산시 왕궁면 운수리에 위치한 가족보호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 및 주교계 생태습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듣고 시설을 점검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익산=장왕원기자